

## 미제스의 기대형성에 대한 접근법과 응용\*

전용덕\*\*

### 〈목 차〉

- I. 서론
- II. 미제스의 기대형성에 대한 접근법
- III. 다른 기대이론에 대한 비판
- IV. 미제스의 기대형성에 대한 접근법의 응용
- V. 결론

### 한글초록

미제스는 '기대가 형성되는 방법'과 '기대가 인플레이션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문적 공헌을 한 많지 않은 연구자들 중의 한 명이다. 이 연구는 미제스가 인간이 역사학 원리인 특정한 이해를 토대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만든다는 기대이론과 경제이론을 기본으로 그런 기대를 보조가정으로 사용하여 인간행동학적 경제학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이다. 이 연구는 미제스의 기대이론을 이용하여 합리적 기대가설, 적응적 기대 등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미제스는 1차 대전을 전후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을 자신이 제안한 기대이론을 응용하여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제스는 당시의 경제주체들이 순차적으로 비탄력적 기대, 적응적 기대, 합리적 기대 등으로 기대를 변경함에 따라 통화량 증가의 효과가 시기별로 달랐음을 보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미제스의 기대이론을 조선왕조 말엽의 초인플레이션에 응용하여 기대가 인플레이션 과정에 미친 영향을 가설적 수준에서 분석했다.

**주제어(key words):** 미제스의 기대이론, 심정학, 인간행동학적 경제학,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조선왕조 말엽의 화폐 정책

\* 이 논문은 대구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물이다.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E-mail: ydjeon@daegu.ac.kr

## I. 서론

기대가 경제활동을 포함한 인간의 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기대가 형성되는 방법’과 ‘기대가 인플레이션 과정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연구한 경제학자는 많지 않다. 미제스(L. Mises)는 그 두 가지에 대해 중요한 학문적 공헌을 한 많지 않은 연구자들 중의 한 명이다. 그러나 그의 그런 공헌은 학계에서는 ‘간과’ 또는 ‘무시되어’ 왔거나 ‘오해’되어 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류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학파를 추종하는 연구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주류경제학자에 속하는 연구자인 Edward(1985)는 미제스의 기대형성 방법에 대해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추종자들로서 Lachmann(1976), Ebeling(1988) 등은 미제스의 공헌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 Kirzner(1973, 1979) 등은 기대의 형성에 대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제스의 공헌을 간과 또는 무시한 것처럼 보인다.<sup>1)</sup> Rothbard(1993)는 한 재화의 가격에 대한 기대가 그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재화의 수요와 공급, 이자율 결정과 화폐의 수요, 기업이 역할 등에서 투기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경제행위에 있어서 기대의 영향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sup>2)</sup> 그러나 그는 미제스처럼 기대형성 방법을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진실일 것이다.<sup>3)</sup>

그러나 미제스가 기대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의 이론

1) Ebeling(1988)은 미제스의 기대형성 접근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못 평가하고 있다. Ebeling(1988, p. 12, 15)은 “(중략) 미제스는 시장과정에서 기대와 그 형성에 대한 건설적인 이론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중략) 그러나 다시 한 번, 그의 저작들의 이 부분[화폐이론 부분을 말함. 저자주]은 그의 기대형성 이론과 통합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Human Action*에서도 그렇지 않다. 그의 기대형성에 대한 이론은 완전하게 개발되지 않고 그 자신의 체계 내에서 응용되지 않은 것이다.” 미제스에 대한 Ebeling(1988)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이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미제스는 기대형성 방법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그 방법을 화폐이론에 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Ebeling(1988)은 미제스의 기대형성에 대한 접근법과 그 접근법 개발에 영향을 미친 연구자들과 아이디어들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2) 이 점에 대해서는 Salerno(2010), p. 201, 각주 7번 참조.

3) 바로 이 점에서 Ebeling(1988)의 지적, 즉 Rothbard(1993)가 기대 형성에 대해 공헌한 바가 없다는 지적은 옳은 것처럼 보인다. 비록 그가 기대가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화폐의 수요 등에 투기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말이다. Ebeling(1988), p. 12 참조.

이나 접근법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미제스는 1957년 발표한 *Theory and History*라는 책에서 기대는 역사학의 연구 방법인 ‘이해(understanding) 또는 ‘특정한 이해(specific understanding)라는 방법을 통해 역사적 지식 또는 심정학적 지식을 얻고, 그런 지식을 기초로 하여 투기적으로 예측하는 것임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완성했다. 그러므로 미제스가 제시하는 기대는 심정학적 지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학 - 역사학도 인간행동학의 일부임 - 의 일부이고, 예측하는 사람의 투기적 예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간행동학의 일부이며, 바로 그 이유로 기대와 기대형성 방법은 인간행동학의 영역에 속하지만 경제학의 일부는 아니다. 그리고 미제스는 미래에 대한 이런 기대 또는 예상을 ‘미래에 대한 특정한 이해’라고 불렀다.<sup>4)</sup>

미제스는 1949년 발표한 *Human Action*에서는 역사학에서 유도된 경험적 지식이 경제이론의 보조적 가정으로 사용되지만 경제이론의 선형성을 없앨 수 없다는 점을 보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대라는 경험에 기초한 지식을 경제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경제이론에 보조적인 가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sup>5)</sup> 그리고 미제스는 또한 동일한 책에서 화폐 가치에 대한 기대가 인플레이션 과정을 어떻게 몰아가게 되는가를 가장 전형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미제스는 1932년에 발표한 “The Great German Inflation”이라는 논문에서 역사가로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과정에서 각종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그리고 그 결과 각종 기대가 ‘인플레이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개론적인 수준에서 보여주었다. 물론 앞의 논문과 *Human Action*에서는 기대형성에 대한 접근법이 *Theory and History* 수준으로 완전하게 서술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뒤에서 보겠지만, 기대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상적 유형’(ideal type)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은 *Human Action*과 *Theory and History*, 두 저술 모두에 나오지만 기대형성 방법과 기대에 대해 전자가 후자보다 덜 체계적일 뿐 아니라 덜 종합적인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sup>6)</sup> 요약하면, 미제스의 기대형성 방법과 기대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긴 시간에 걸쳐서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이 미제스 이후의 연구자들이 그의 업적에 대해 오해 또는 무시를 하도록 만들었을 수 있다.<sup>7)</sup>

4) Mises(2007), pp. 273~274 참조.

5) 경제이론의 선형성에 대해서는 Mises(1996), 국내문헌으로는 전용덕(2014)을 참조.

6) Ebeling(1988), p. 14 참조.

제Ⅱ절에서는 미제스가 *Theory and History*에서 제시한 기대의 형성 방법이 심정학(Thymology, 心情學)의 일부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심정학은 역사학의 일부로서 이해 또는 특정한 이해라는 방법을 통해 심정학적 지식을 얻는다는 점을 보인다. 이 때 역사가는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행동하는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상, 즉 기대를 형성하지 않을 수 없는 데, 미래의 역사가로서 그는 과거의 역사적 지식 또는 심정학적 지식을 기초로 미래를 투기적으로 예측한다. 그리고 미제스가 주장한 기대형성에 대한 접근법의 특징과 의미를 서술한다.

제Ⅲ절에서는 미제스의 기대형성에 대한 접근법에 비추어 다른 기대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여기에는 주류경제학에서 널리 알려진 합리적 기대가설과 적응적 기대에 대한 접근법을 다룬다. 제Ⅳ절에서는 미제스가 1932년에 “The Great German Inflation”라는 논문에서 발표한 내용을 1957년에 제시한 기대형성 방법을 이용하여 자세하게 해설하고자 한다. 이어서 조선왕조 말엽 대원군이 당백전을 발행하고 난 뒤에 발생한 인플레이션과 그 이후 민간이 다시 상평통보를 도입하는 과정을 미제스의 기대형성 방법을 응용하여 ‘가설적 수준’의 주장을 하고자 한다. 제Ⅴ절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 II. 미제스의 기대형성에 대한 접근법<sup>8)</sup>

### 1. 기대의 형성 방법과 심정학

인간의 모든 행동은 미래를 향해 있다. 인간은 자신의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하여 행동한다. 즉, 인간이 행동하는 이유는 자신이 맞이할 미래를 개선하는 것이다.<sup>9)</sup> 정확하게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행동하지 않았을 때보다 행동했을 때 나타날 상태가 더 만족스럽도록 만들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에게 미래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미래는 ‘불확실’(uncertain)하다. 현재로서는 인간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7) 그러나 이 주제는 이 논문의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8) 미제스의 기대형성 방법에 대한 기초, 특히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은 부분적으로는 막스 웨버(Max Weber)에서 왔다. Ebeling(1988), p. 13 참조.

9) 역으로, 미래를 현재보다 개선할 수 없다면 인간은 행동하지 않는다. Mises(1996) 참조.

있는 능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는 인간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즉 현재보다 미래를 더 낮게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계획(plan)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그 점을 Mises(2006, p. 45)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미래를 이해하지 않고는 어떤 행동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없다.”<sup>10)</sup> 미래를 이해하는 것 또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오늘날의 용어로 ‘기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래를 이해한다고 할 때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Mises(2006, p. 44)는 설명한다. 즉, “행동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미래의 불확실성은 두 가지의 원천에서 발생한다. 첫째, 미래의 불확실성은 자연현상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간행동과 관련된 자연현상 중의 하나로서 날씨가 있다. 날씨를 기상학에 의해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종종 오보가 발생한다. 특히 날씨의 장기 예측은 정확도가 상당히 낮다. 따라서 자연현상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날씨를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다.

둘째, 미래의 불확실성은 다른 사람의 미래행동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자연현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외하면 행위자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할 때 그 행위자의 행동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점을 Mises(2006, p. 42)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다른 사람의 미래 행위의 불확실성에 의해 초래될 뿐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은 행동에 중요하지만 자연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에 관한 지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초래된다.”

예를 들면, 겨울에 빙과류를 제조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여름에 판매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자. 그 기업가는 빙과류를 생산할 때 다음 해의 기상을 예측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빙과류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의 변화, 소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의 변화, 소득과 기호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변동 등 소비자의 행

10) Mises(2006, p. 45)는 “심지어 고립된 개인의 행동마저도 그 행위자의 미래 가치판단에 대한 특정한 가정들에 의해 인도되고 고립되어 있을 때까지는 행위자가 생각하는 그 자신의 개성에 대한 이미지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설명한다.

동과 관련한 변화를 예상해야 한다. 겨울 시점에서 다음 해 여름 시점의 빙과류 생산자의 사업의 미래는 날씨와 소비자의 기호를 포함한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를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에 달려있게 된다. 자연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업의 경우에 앞의 사례와 상황은 비슷하다. 제조업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자연현상과 큰 관련이 없는 경우와 자연현상과 관련이 있는 경우이다. 자연현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사업의 미래는 빙과류 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 자연현상과 큰 관련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자연현상에 대한 예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휴대전화의 경우에 자연 현상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 경우에 소비자 기호를 포함한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는 일이 휴대전화의 제조와 판매 사업에서 중요하다.

자연현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외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 즉 기대를 형성하는 것은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의 미래행동을 예상하는 것이다.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의 미래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그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의 목적 또는 동기, 가치판단,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 행동의 결과 등을 예측하는 것이다.<sup>11)</sup> 물론 기대를 형성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Mises(2007, p. 311)는 “다른 사람의 미래 반응들을 아는 것은 행동하는 인간의 첫 번째 임무이다.”라고 지적한다.

인간의 감정, 동기 또는 목적, 아이디어, 가치와 의지에 대한 판단 등의 내용을 연구하는 학문을 ‘심정학’이라고 부른다. 심정학은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일즈맨은 훌륭한 심리학자가 되어야 한다거나 정치가는 군중 심리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는 심리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그러나 이때의 심리학이라는 용어는 ‘실험 심리학’(experimental psychology) 또는 ‘자연 심리학’(naturalistic psychology)과 구분해야 한다. 두 종류의 지식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비록 심리 또는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11) 자연과학들에 있어서 예측은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과 다르다. Mises(2007, p. 303)는 자연과학들에서 미래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연과학들이 이 선험적 가정(*a prioristic assumption*)[자연 현상의 연쇄와 연속에는 움직일 수 없는 확일성이 지배한다는 선험적 가정, 저자주를 참고할 때만, 과거에 관찰된 규칙성으로부터 미래의 사건들에서도 똑같은 규칙성을 추론해내는 것, 즉 연장귀납(*ampliative induction*)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연장귀납이 자연과학들의 인식론적 토대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들에서 사물들이나 사건들이 규칙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 또는 전제를 하지 않는다면 자연과학들에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 자연과학들에서 사물들이나 사건들에서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선험적 가정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뒤죽박죽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말이다. 바로 그 이유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미제스는 전통적인 심리학과 구분하기 위하여 인간의 감정, 동기, 아이디어, 가치와 의지에 대한 판단 등을 다루는 것을 심정학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다.<sup>12)</sup>

심정학은 역사학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심정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학을 먼저 알아야만 한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인간행동의 기록이다. 역사학은 과거의 일어났던 자연현상을 포함한 인간행동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다. 그 점에서 역사학은 인간행동학의 일부이다.<sup>13)</sup> 역사가는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역사학 원리(historical principle)는 무엇인가? 역사학 원리를 알기 위하여 역사가의 작업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역사가는 비역사적 학문들 - 수학, 논리학, 경제학을 포함한 인간 행동 과학들, 자연과학들 등 - 의 도움을 받아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고 설명한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은 비역사적 학문들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없는 칩전물, 즉 각 사건의 개별적이고 독특한 특성이 언제나 남아 있게 마련이다. 역사가는 비역사적 학문들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해’라는 방법으로 해석하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미제스는 역사적 사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라는 방법에 의해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Mises(1996, p. 49)의 주장을 인용해 본다.

“역사가가 직면하는 진정한 문제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처럼 언제나 그 사태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모든 다른 과학들(비역사적 학문들을 말함, 저자주)이 제공하는 이론들의 기초 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가 직면하는 문제들 각각의 밑바닥에는 다른 과학들의 가르침으로 분석할 수 없는 무언가가 언제나 남아 있다. 각 사건의 바로 이런 개별적이고 독특한 특성이야말로 *이해*에 의해 연구되는 것이다.”<sup>14)</sup>

미제스는 이러한 이해를 베르그송은 ‘직관’이라고 불렀다고 덧붙이고 있다.<sup>15)</sup>

한 마디로, 역사학의 방법론 또는 역사학 원리는 이해이다. 역사학 방법론으

12) Mises(2007), pp. 264~65 참조.

13) 경제학도 인간행동학의 일부이지만 그 대상에서 역사학과 다르다.

14) 역사 원리로서의 이해라는 방법은 실증주의자들의 비난에 직면하여 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개념이라고 한다. Mises(2006), p. 44 참조.

15) Mises(1996), p. 49 참조.

로서의 이해란 비역사적 학문들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정신적으로 납득하는 것임을 Mises(1996, p. 50)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즉 “이해의 범위는 논리학, 수학, 인간행동학, 자연과학들 등에 의해 전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들을 정신적으로 납득하는 것이다. 이 모든 과학들(즉, 앞에서 언급한 논리학, 수학, 인간행동학, 자연과학들 등을 지칭함, 저자주)에 의해 그런 현상들이 깨끗이 치워지지 않는 한에서는 말이다.”

미제스가 강조하는 이해는 역사 연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sup>16)</sup> 또는 역사 연구에서 이해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 번째 대상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치판단에 의존하여 선택한 목적이다. 즉,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목적을 추구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상은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한 수단이다. 즉,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수단에 의존하여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세 번째 대상은 개인이나 집단이 그런 목적과 수단의 선택에 의하여 성취하고자 한 행동의 결과이다. 물론 행동의 결과는 목적에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전자는 성공한 경우이고 후자는 실패한 경우이다. 이와 동시에 결과의 강도도 평가해야 한다. 행동의 결과와 결과의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어떤 사건의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해의 세 가지 대상 중에서 첫 번째 대상이 다른 두 대상에 비해 중요하다.

역사 연구에 있어서 이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의 역할에 대한 Mises(1996, p. 50)의 설명을 인용해 본다.<sup>17)</sup>

“이해는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이 특정한 가치 판단과 선택에 의해 뽑어져 나온 특정한 행동과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동에 몰입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리고 이해는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이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특정한 기술적, 치료법적, 행동학적 원리들 등에 의해 제공되는 특정한 수단을 응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게다가 이해는 행동에 의해 야기된 결과와 결과의 강도를 평가하는 것을 시도한다. 이해는 각 행동이 모든 행동과 관련된 정도, 즉 행동이 사건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16) 미제스는 이해를 시인(approval)과 혼동하지 말 것을 설명한다. 또한 그는 이해와 감정이입(empathy)을 구분할 것을 지적한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Mises(1996), p. 50 참조.

17) Mises(2006), p. 43 참조.



역사적 사건은 언제나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사건 집단도 독특하고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하다’(specific)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제시했던 이해라는 역사학 원리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특정한 이해’라는 원리가 된다. 요컨대, 역사학 원리는 이해 또는 특정한 이해이다.

특정한 이해라는 역사 원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용되는가를 Mises(2007, p. 310)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특정한 이해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한 이해는 되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고,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특정 목적을 선택할 때 그가 의미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의 행동의 결과물은 무엇이었는가? 또는 미래를 위해 이와 유사한 질문들도 던진다. 그가 무슨 목적들을 선택할 것인가? 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의 행동의 결과물은 무엇이 될 것인가?”

물론 이 때 과거 사건들에 대한 특정한 이해 또는 인간들의 과거 가치판단과 행동에 대한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인간의 미래 반응을 이해하기 수단일 뿐이다. 이 점을 Mises(2007, p. 311)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특정한 이해의 주요 인식론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어떻게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의 미래가치 판단들과 행동들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중략)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 즉 각각의 모든 사람이 그의 동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직면하는 과제는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관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미래 반응을 아는 것이 행동하는 사람의 우선과제이다. 행동하는 사람의 과거가치 판단들과 행동들에 대한 지식은 비록 불가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미래 행동을 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이해 또는 특정한 이해의 한계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이해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역사에서 비역사적 학문들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즉 앞에서 설명한 이해의 대상에만 국한해야 할 뿐 아니라 이해라는 방법을 이용하

여 역사를 설명하는 경우에도 역사가가 비역사적 학문인 자연과학이나 경제학의 원리들 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 점을 Mises(1996, p. 68)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해가 현대 역사가에게 푸닥거리는 언제나 병든 소를 치료하는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할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 또한 이해가 현대 역사가로 하여금 경제법칙이 고대 로마 또는 잉카 제국에서는 타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도록 하지도 않는다.”

이 한계는 물론 다른 사람의 과거 가치 판단들과 행동들을 기초로 그 다른 사람의 미래행동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역사가는 이해 또는 특정한 이해라는 방법을 통해 역사적 사건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추구한 목적 또는 동기, 가치판단,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동원한 수단, 행동의 결과 등을 해석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앞에서, 인간의 감정, 동기, 아이디어, 가치와 의지에 대한 판단 등의 내용을 연구하는 학문을 심정학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러므로 심정학은 역사학의 일부이다.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심정학의 영역이고 심정학은 역사학의 일부이다. 그러면 심정학 또는 역사 연구로부터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미래 예측을 위해 심정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심정학은 과거에 특정한 사람들 또는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가치판단하고 행동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나 그들이 미래에 동일한 방식으로 가치평가하고 행동할 것인가는 불확실하다. 역사학자 또는 일반인은 심정학에 기초한 역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투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이다. Mises(2007, p. 272)는 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심정학이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특정 방식으로 가치판단하고 행동했다는 점이 전부이다. 미래에 그들이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가치평가하고 행동할 것인가는 불확실하다. 그들의 미래 행동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전부는 인간행동 과학들 중에서 역사

부문인 특정한 이해를 기초로 미래를 투기적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18)

Mises(2007, pp. 273~74)는 다른 곳에서 이와 유사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심정학적인 경험으로부터 인간 - 그가 개인이건 집단이건 상관없이 - 의 미래 행위를 확실하게 연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정학적 지식에 기초한 모든 예언은 모든 사람이 일상의 행동에서 행하는 그리고 특히 정치가들, 정상배들, 경영자들이 또한 일상의 행동에서 행하는 미래에 대한 특정한 이해이다.”

구체적으로, 역사적 지식은 미래 예측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역사적 지식이란 역사적 사건에서 개인들의 가치판단들, 목적들, 목적들을 위한 수단들, 행동의 결과들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이런 지식이 미래 예측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먼저 개인들의 가치판단들, 목적들, 목적들을 위한 수단들, 행동의 결과들에 대한 사전 지식 또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Mises(2007, pp. 306~07)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인간행동과학들을 특징짓는 것은 개인들의 가치판단들에 대한 사전 지식과 같은 것, 이 가치판단들의 영향 하에서 그들이 지향할 목적들에 대한 사전 지식과 같은 것, 추구하는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의존하는 수단들에 대한 사전 지식과 같은 것, 이것들 (가치판단들, 목적들, 수단들 등을 지칭함, 저자주)이 그 지식을 자연과학들이 전해주는 요소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개인들의 행동들의 효과들에 대한 사전 지식과 같은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가는 심정학을 통해 역사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 지식은 미래의 조건들을 예상하고 그것을 기초로 미래의 행동을 계획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점을 Mises(2007, p. 307)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8) ‘투기하다’(speculate)라는 용어는 원래는 속고와 견해의 형성이라는 의미였다. Mises (2006), p. 45 참조.

“하지만 그 지식(역사적 지식을 말함, 저자주)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미래의 조건들을 예상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다고 보여 지고, 반드시 항상 미래의 조건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둔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미래 예측에 있어서 심정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Mises(2007, p. 274)는 심정학으로는 자연과학과 같은 방법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심정학이 성취한 것은 인간의 성향을 기록한 목록을 다듬는 것이다. 게다가 심정학은 일정 성향들이 일반적으로 일정한 다른 성향들과 연계되어 과거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심정학은 자연과학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측해 낼 수는 결코 없다. 심정학은 특정한 미래의 사건에 여러 요소들이 각각 어떤 비중으로 작용할지를 결코 미리 알 수도 없다.”

여기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 또는 예상과 과거 역사 분석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미래에 대한 예측과 과거 역사 분석의 차이점은 미래 예측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다루고 역사 분석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룬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둘 간의 유사점은 특정한 이해라는 역사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가는 과거 역사를 특정한 이해라는 방법을 이용해 설명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언 또는 예측은 미래의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날 일을 특정한 이해라는 방법을 이용해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특정한 이해라는 방법에는 투기적 요소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과거 역사 분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미래에 대한 예상은 과거의 심정학적 경험 또는 지식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미래 예상과 과거의 역사 분석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특정한 이해라는 방법을 이용해 과거 역사를 설명하는 사람을 ‘과거의 역사가’(historian of the past)라고 부르고 특정한 이해라는 방법을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사람을 ‘미래의 역사가’(historian of the future) 또는 ‘행동하는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sup>19)</sup> 여기에서 미제스가 미래의 역사를 행동하

19) Mises(2007), p. 320 참조.

는 인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것은 행동하는 인간은 일상에서 언제나 미래를 지향하고 특정한 이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미래행동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역사가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동에 대한 예측 또는 예언의 어려움, 즉 기대형성의 어려움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현실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건은 복합 현상이다. 예상을 하려는 사람은 그 사례에서 명백하게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요소들을 먼저 제거한다. 이것이 ‘예상의 제1단계’이다. 그 다음으로는 그 사례에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미쳐왔던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상의 제2단계’이다. 그 다음 단계는 그런 요소들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을 예상하는 것이다. 즉,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상의 제3단계’이다.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예상하는 것이 각 요소들의 영향력의 크기를 예상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쉽다. 즉, 예상에서 어려움은 각 요소들의 영향력의 크기를 예상하는 데 있다. 즉, 세 단계 중에서 제3단계가 가장 어렵다는 것이다. Mises(2007, p. 314)는 미래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각 개인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다시 설명한다.

“정치가, 장군, 기업가 등은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미래 사건에 미치는 각 요소들을 전부 정확히 알아야 하지만 그 사건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들이 미치는 정도를 정확히 예상해야 하고 영향이 미치는 시점도 정확히 예상해야 한다.”

미래 사건을 예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어려움과 유사한 어려움이 역사가가 과거 사건을 이해하고자 할 때도 발생한다. 즉, 역사가에게 있어서 과거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어려움보다는 각 요소들의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이다.<sup>20)</sup> 그리고 과거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들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어려움은 역사가들의 역사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차이를 없애는 것도 쉽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 Mises(1996, pp. 57~58)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0) Mises(2007), p. 314 참조.

“두 명의 역사가가 역사학 이외의 다른 학문들에서 유도된 이론들과 역사적 사건에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건에 미치는 요소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클 수 있다. 이 경우에 두 역사가의 의견의 차이는 두 역사가의 가치판단, 선호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sup>21)</sup>

이러한 차이는 역사적 사건에 미치는 요소들의 영향력에 대해 두 역사가가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에 미치는 요소들의 영향력에 대한 판단의 차이는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다른 차이, 예를 들어, 다른 학문들에서 유도된 이론들, 행위자들의 목적과 수단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미제스는 지적한다. 그러나 미제스는 역사적 사건에 미치는 요소들의 영향력의 차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역사가의 이해와 보통 사람들의 미래 예측 행위가 어떻게 유사한가를 Mises(1996, p. 58)의 설명으로 요약해본다.

“이해란 역사가들만의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다. 자기의 환경조건들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은 역사가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적응시켜야 할 미래 사건의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 이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중략] 그리고 [중략] 행동은 필연적으로 언제나 미래를, 따라서 불확실한 조건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것은 언제나 투기다. 행동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역사가들의 눈으로 미래를 본다.”

모든 과학은 ‘개념’을 만들어 사용한다. 역사학 원리인 이해 또는 특정한 이해를 위하여 유용한 개념은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이다.<sup>22)</sup> 이상적 유형이라

2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작금에 현대사 기술을 둘러싼 좌우 대립은 두 역사가 집단의 가치판단 등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미제스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22) Ebeling(1988, p. 13)에서 이상적 유형에 대한 설명을 원문으로 인용해 본다. “An ideal type is meant to be a stylized reconstruction, a selection of typical traits or characteristics conceived to represent for purposes of the analysis at hand those qualities in an individual, social institution or order, or historical period that enable an interpretive understanding of that individual, institution or order, or historical period. By its very construction, given the analytical

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먼저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sup>23)</sup>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에 독재자, 군사 쿠데타, 10월 유신, 새마을 운동, 개발독재 등의 용어 또는 의미를 사용한다. 이때 사용하는 독재자 등과 같은 용어와 그 의미가 이상적 유형이다. Mises(1996, p. 60)는 역사와 행동에서 이상적 유형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상적 유형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역사적 문제도 다룰 수 없다. 역사가가 개별 인간 또는 개별 사건을 다룰 때조차도 이상적 유형의 언급을 피할 수 없다. 만약 역사가가 나폴레옹에 대해 말하는 경우에 반드시 사령관, 독재자, 혁명 지도자 등과 같은 그런 이상적 유형을 언급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가가 프랑스 대혁명을 다룰 경우에 혁명, 구정권의 붕괴, 무정부 상태 등의 이상적 유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적 유형에 대한 언급이 단지 문제의 사례에 그 이상적 유형을 응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이상적 유형을 수단으로 해서 묘사되고 해석된다. 보통 사람들도 과거 또는 미래의 사건을 다룰 때에는 언제나 이상적 유형을 이용해야 하며, 무의 식 중에 언제나 그렇게 하고 있다.”

역사가는 역사적 사건들을 정리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 때 이상적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역사적 사건에 붙이는 의미의 근접성이다. 이 때 의미가 비슷한 요소들을 이상적 유형들로 정리한다. 이 점을 Mises(1996, p. 59)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학이 무한히 다양한 사건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외관은 사건들의 의미다. 역사학의 대상 - 인물들, 아이디어들, 제도들, 사회적 실체들, 인공물들 등 - 의 체계화를 위해 적용하는 단 하나의 원리는 의미의 근접성이다. 의미가 얼마나 유사한가에 따라 역사학은 요소들을 이상적 유형들로 정리한다.”

---

problem at hand, it represents an accentuation of certain qualities or characteristics and thus an idealization of the various attributes the individuals or objects possess or have in common.”

23) 영어 'ideal type' 을 '전형적 유형' 으로 번역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여기에서는 이상적 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Mises(2007, p. 316)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건들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특정한 유형의 기초 위에 이상적 유형은 구축되고 사용된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건 과거를 분석하는 것이건 상관없이 말이다.”

따라서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은 역사 연구에 사용되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은 역사학 원리인 특정한 이해를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은 미래를 예측하는 일, 즉 기대를 형성하는 일에도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비역사적 학문들에서 사용되는 개념처럼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이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sup>24)</sup> 왜냐하면 이상적 유형, 그 자체가 역사가가 행동하는 개인들의 동기들, 아이디어들, 목표들과 그들이 동원하고자 했던 수단 에 대해 이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상적 유형은 특정 시점과 특정 장소에서의 개인들이 그들의 행동에 부여했던 의미의 근접성에 의거하여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한 마디로, 역사 연구에서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 Mises(1996, p. 60)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이상적 유형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역사 문제도 다룰 수 없다.”

역사학에서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은 이해 또는 특정한 이해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의 한계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 유형은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상적 유형은 개인들과 사건들을 단순화하는 이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 단순화로 인하여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 이상적 유형으로 다채롭고 변화무쌍한 인간의 삶과 행동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은 비역사적 학문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sup>25)</sup> 아래에서 설명하는 1914-1923년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을 설명하고자 할 때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직전인 ‘1919년 이전의

24) Mises(1996), pp. 59~60 참조

25) 이 점에 대해서는 Salerno(2010), pp. 222~23 참조.



기업가들'과 초인플레이션 말기인 '1922년의 기업가들'은 기대의 내용이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거의 동일한 집단이지만 다른 시점에 있는 기업가들은 통화량의 증가에 반응하여 서로 다른 경험과 이데올로기가 기대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두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기업가들이 일반적으로 예측 능력이 남다르다는 점에서 기업가들을 이상적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초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점의 기업가들과 초인플레이션 말기의 기업가들은 다른 경험과 이데올로기가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에 두 집단을 초인플레이션을 설명하기 위한 이상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초인플레이션 말기에 가장 기업가적 예측 능력이 약하고 이데올로기에 가장 적게 영향을 받았던 집단으로까지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퍼지게 되었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소득 생활자'(income earner)라는 이상적 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가는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이해 또는 특정한 이해라는 역사학 원리를 이용하여 심정학적 지식을 다듬는 데, 이 때 그는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행동하는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상, 즉 기대를 형성하지 않을 수 없는 데, 미래의 역사가로서 그는 과거의 역사적 지식 또는 심정학적 지식을 기초로 미래를 투기적으로 예측한다. 물론 여기에도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은 사용된다. 그리고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의 한계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2. 미제스의 기대형성 접근법의 특징과 의미

앞의 절에서 미제스는 인간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기대를 형성하는가를 보여 주었다. 이제 미제스가 주장한 기대형성 방법의 특징과 그 의미를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기대라는 미래에 대한 예측은 과거의 심정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투기적 예측이고, 기대형성의 일부는 이해 또는 특정한 이해라는 역사학의 방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대형성 방법과 기대라는 지식은 인간행동학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기대형성 방법과 기대라는 지식 그 자체는 인간행동학의 일부인 경제학이라는 영역에 속하지는 않는다. 더 구체적으로는, 기대의 내용(content of expectations)과 기대의 조정(adjustment of expectations)은 행동공리(axiom of action)로부터 논리적으로 연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sup>26)</sup>

기대형성 방법과 기대라는 지식 그 자체가 인간행동학에 속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심정학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기대의 형성과 기대의 내용에 대한 가정을 엄격히 공식적이고 선형적인 특징을 가진 경제이론에 통합함으로써 특정한 시점과 장소에서의 실재하는(real) 인간의 삶과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sup>27)</sup> 예를 들어, 일정 시점의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통화와 관련한 경제이론을 기초로 그 당시에 다수의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 – 이것은 역사가 또는 경제학자가 역사가로서 특정한 이해를 통해 밝혀낸 것 – 를 가정하여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 때 우리는 인간행동학과 경제이론을 통합하여 인플레이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행동학적 경제학’(praxeological economics)이라고 부를 수 있다.<sup>28)</sup> 이 때 기대의 형성과 내용에 대한 가정은 현실 세계의 경제 정책들이나 사건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보조적인 가정이다. 보조적인 가정이지만 물론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기대형성에 대한 미제스의 접근법은 과거 사례를 이용하여 경제이론을 설명함에 있어서 심정학적 연구 또는 역사적 연구로부터 유도된 지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경제이론을 응용하여 역사적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심정학적 지식 또는 연구가 실재하는 보조적인 가정들로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플레이션 과정의 경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제이론과 함께 기대에 대한 역사적 지식이 보조적인 가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을 잘 보여주는 예제로서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현상을 들 수

26) Salerno(2010), p. 217 참조. 다른 한편, 경제이론은 행동공리로부터 유도한 것이고 바로 그 이유로 경제이론도 역사학처럼 인간행동학의 일부이다.

27) Mises(1996), pp. 65~66 참조.

28) 인간행동학적 경제학이라는 용어는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을 모두 이용하여 사회·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Salerno(2010)가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 순수 경제이론과 기대의 형성과 기대내용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이용하여 특정 시점의 인플레이션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것과 순수 경제이론만을 이용하여 특정 시점의 인플레이션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설명의 정확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현상은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대의 형성과 기대의 내용은 역사학의 일부이다. 그리고 역사학은 인간행동학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경제이론을 기본으로 하고 특정 시점의 기대의 형성과 기대내용을 보조 가정으로 하여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것을 인간행동학적 경제학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이유로 경제이론만으로 인플레이션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 인간행동학적 경제학이라는 용어의 중요성과 생소함을 고려하여 약간의 설명을 덧붙였다. 인간행동학적 경제학이라는 용어는 Salerno(2010), p. 233 참조.

있다. 독일 초인플레이션 현상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sup>29)</sup> 그리고 Salerno(2010)는 미제스의 기대에 대한 접근법을 미국의 1980년대 이후의 경기변동을 다른 가설들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임을 예시하고 있다.<sup>30)</sup>

둘째, 기대 또는 예측이 인간행동학에 속한다는 주장은 기대 또는 예측이 경제이론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그 재화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경제이론은 예상하게 해준다.<sup>31)</sup>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심정학에 기초하여 형성된 기대는 투기적 예측으로서 경제이론에서 유도된 것과 같은 종류의 예상이 아니다. 심정학적 경험과 투기적 예측에 따른 기대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의 능력에 따라 기대의 정확성도 달라지기 때문이다.<sup>32)</sup> 이것은 기대 또는 예상을 경제이론의 일부로 분류하는 것이 틀렸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기대가설에서 모형 내에서 기대를 경제이론의 일부로 다루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셋째, 기대의 내용과 기대형성 방법은 인간행동학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대의 내용, 기대 변화 시기, 기대 변화 정도, 기대 변화 속도 등을 사전적으로(ex ante) 알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기대는 빠르게 바뀔 수 있고 늦게 바뀔 수도 있다. 즉, 기대의 조정이 일어난 결과로 기대의 내용이 바뀐다.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사전적으로 기대의 내용 등을 투기적으로 예측할 뿐이다. 우리는 기대의 내용과 형성 방법을 사후적으로(ex post) 알 수 있다. 기대의 내용과 형성 방법에 대해 사후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경제정책들이나 사건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보조적인 가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했다. 기대에 대해 사전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은 기대를 사전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점은 합리적 기대가설이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

29) 물론 경제이론 또는 심정학적 경험에 의해 밝혀진 기대의 내용, 어느 한 쪽이 틀리거나 둘 모두가 틀린 경우에 특정한 경제 현상에 대한 설명은 틀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경제이론과 기대의 내용, 둘 모두가 정확해야 한다.

30) Salerno(2010), pp. 230~31 참조.

31) 물론 이 때의 예상은 정량적인(quantitative)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qualitative) 것이다. 즉 경제변수의 움직임의 방향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32) 심정학적 경험에 의한 미래 사건들에 대한 지식, 즉 기대는 급간 확률(class probabilities)이 아니라 사례별 확률(case probabilities)이다. 사례별 확률은 급간 확률과 전적으로 다르다. Mises(1996, p. 110)는 사례별 확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특별한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결정하는 요인 중 일부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결정 요인들도 있다.”

다. 이 점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넷째, 기대를 사전적으로 알 수 없다는 점은 미래가 과거와 같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sup>33)</sup>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들은 화폐의 증가가 과거와 같은 경기변동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볼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이 기업가들이 학습과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달리하고 그런 다른 기대가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화폐의 증가가 과거와 같은 경기변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경제현상에서 기대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미제스가 기대의 내용과 기대의 형성 방법이 인간행동학의 일부라고 주장한 것은 검증 가능한 가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대의 내용과 기대적응 과정(expectations adjustment mechanism)을 간단히 ‘가정’ 해 버리는 것은 틀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미제스에 의하면 기대의 내용과 기대를 바꾸는 것(adjustment of expectations)은 각자의 심정학적 경험과 투기적 예측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미제스는 기대의 내용과 기대적응 과정은 경제 모형 내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지 가정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방법론적 관점에서 기대는 내생적인(endogenous) 것이지 외생적인(exogenous)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기대가설은 모형 내에서 기대를 가정해 버림으로써 기대를 외생적 변수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여섯째, 기대는 과거의 심정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투기적인 예측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진행 과정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언제나 다를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경제이론은 통화량 증가를 인플레이션으로 정의하지만 실제로 재화들의 가격 상승은 당시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sup>34)</sup>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도 말이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 과정은 기대에 따라

33) Mises(1996), p. 797 참조.

34) 2차 대전 이전까지 학술 연구자들을 포함하여 보통 사람들까지도 통화량 증가를 인플레이션으로 정의했다. 2차 대전 이후에 케인스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을 재화들의 일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물론 틀린 것이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왔다. 여기에서는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중요성에 비추어 생략한다. 이하에서는 통화량 증가를 인플레이션으로 정의하는 것을 따르기로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재화들의 일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물론 동일한 인플레이션 과정이 전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910-1920년대 초인플레이션 발생 이후 독일에서 작은 통화량 증가에도 공황 상태에 빠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곱째, 기대라는 지식은 자연과학들에서 실험에 의해 정립된 ‘사실들’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sup>35)</sup> 자연과학에서의 실험적 지식은 ‘과학적 사실들’(scientific facts)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실들의 진리 여부는 시간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심정학적 지식은 ‘실재하는’ 지식이지만 ‘역사적 사실들’(historical facts)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 사실들은 독특하고 반복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의 실험적 지식과 역사학의 심정학적 지식은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그 결과,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자연과학에서의 예측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정확성에 있어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의 예측과 자연과학에서의 예측은 전적으로 다르다. 정확성에 있어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예측은 자연과학에서의 예측을 결코 따라갈 수 없다. 그 점을 Mises(2007, p. 335)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적 경험으로부터는, 자연과학들에서 실험실의 실험에서 확립된 사실들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예측들의 확률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예측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덟째, 신용을 증가시켜 경제를 일시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기대와 관련하여 규범적 관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sup>36)</sup> 만약 기업가들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숙지하고 있고 그에 기초하여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면 정부와 은행의 신용 팽창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의 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말 것이다. 즉, 화폐와 신용에 관한 정확한 이론을 기업가들이 숙지하고 그에 따라 기대를 형성하고 있다면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쉽게 하지 못할 것이거나 경기부양을 하더라도 그 기간은 상대적으로 빨리 끝날 것이다. 기업가들이 정부나 은행의 그런 신용확대에 속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5) Salerno(2005), p. 18 참조.

36) Mises(1978, pp. 132~136)는 왜 은행가들을 포함한 기업가들이 정부와 은행의 신용팽창에 속아서 과오투자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가를 묻고 정확한 경제이론의 숙지와 그에 기초한 기대의 형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은행가들을 포함한 상당수의 기업가들은 낮은 이자율과 가격 상승이 우호적인 경영환경 - 그 결과 경제성장을 초래함 - 을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과 가격 상승이 경제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은행가들을 포함한 기업가들이 이런 지식 또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은행의 신용팽창, 인플레이션과 경기확장, 과오투자, 경제위기와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금본위제를 포기한 1971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정부와 은행의 신용팽창에 의한 경제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은행가들을 포함한 기업가들이 정부와 은행의 신용팽창에 속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화폐와 신용에 관한 정확한 경제이론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Mises(1943, p. 252)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경제이론에 대한 완전한 숙지와 화폐와 신용현상의 조심스러운 감독만이 과오투자를 하도록 하는 속임과 피임을 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경제이론에 기초한 기대만이 화폐와 신용의 팽창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대 형성에 대한 규범적 관점은 경제주체들이 먼저 정확한 경제이론을 숙지하고 그에 기초하여 기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경제이론이 필수적이다.

### Ⅲ. 다른 기대이론에 대한 비판<sup>37)</sup>

#### 1. 합리적 기대가설<sup>38)</sup>

합리적 기대가설(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이란 개인들이 지닌 관찰 불가능한 주관적 기대(unobservable subjective expectations)가 진정한 수학적·조건부적 기대(true mathematical conditional expectations)와 정확히 일치할 것이라는 가설을 말한다. 이 때 진정한 수학적·조건부적 기대는 연립 방정식으로 된 거시경제 모형 그 자체에서 암시된 것이다. 여기에서 합리적 기대가설에 대한 결론을 먼저 요약하면, 합리적 기대가설은 실제 세계의 인플레이션 과정에 대한 과학적 진리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합리적 기대가설의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 첫째, 합리적 기대가설은 경제 이론화에 있어서 여건(data)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심정학의 결론들 중의 하나와 모순된다.<sup>39)</sup> 그 결론이란 예측하고 적응하는 능력에 있어서 인간들은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변화무쌍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합리적 기대가설은 모든 인간이 동일한 예측 능력과 적응 능력을 가진다고 암묵적으로 전제함으로써 인간의 다양한 예측 능력과 적응 능력을 무시한 것이다. 물론 특

37) 미제스를 제외하고도 하이에크는 기대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다. 그러므로 하이에크 기대 이론을 미제스의 기대이론과 비교하여 검토하는 일은 매우 의의가 크지만 필자의 능력과 시간의 부족으로 다음 기회로 미룬다. 다만 Hayek(1972a, 1972b, 1978)가 좋은 참고문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Salerno(2010)는 미제스의 관점에서 하이에크와 Kirzner(1973)를 비판하고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Salerno(2010)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Salerno(2010, p. 232)는 또한 미제스의 기대이론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추종자들에서조차도 무시되거나 토론에서 제거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학술사적인 측면에서 이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Salerno(2010)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점을 지적해 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한다.

극단적 주관주의를 주장한 Lachmann(1943, 1986)은 기대가 인간의 선택과 같이 '자동적인'(autonomous) 것이라고 주장하고, 바로 그 이유로 경제학자가 변화의 어떤 특별한 방식을 전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는 Lachmann이 주장한 기대 이론은 생략한다. 검토할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Lachmann(1943, 1986), Salerno(2010), pp. 219~21 참조.

종합하면 다른 기대이론으로서 이 논문에서 다룬 것은 합리적 기대가설과 적응적 기대뿐이다. 그렇게 한 것은 다른 연구자의 기대이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두 이론만을 다룰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이 논문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추후의 과제로 미룬다.

38) 합리적 기대가설에 대해서는 Begg(1982), 참조.

39) Mises(1996), p. 255 참조.

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에 다수의 인간들이 동일한 예측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다양한 능력의 인간이 동일한 예측을 한 경우이지 동일한 능력의 인간이 동일한 예측을 한 경우는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서 모든 인간이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전제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둘째, 합리적 기대가설은 과거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에 대한 심정학적 직관과 모순된다. 모든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마음속에 경제이론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론들을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게 된다. 이 때 사람들이 가진 경제이론들은 완벽한 것이거나, 틀린 것과 맞는 것이 적절히 혼합되어 있거나, 대부분이 틀린 것일 수 있다. 다만 현실에서 완벽한 경제이론들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잘못된 경제이론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sup>40)</sup> 사람들이 어떤 상태의 경제이론들을 가지고 있든지 그들이 가진 경제이론들은 그들의 미래 예측에 강력히 영향을 주게 된다. 물론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경제이론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르다. 이것이 과거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에 대한 심정학적 직관이다. 그러나 합리적 기대가설은 그런 심정학적 직관을 기각한다.

셋째, 정치가들이나 정부가 사람들이 가진 지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경제이론들이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약화)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명백히 합리적 기대가설은 성립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화폐를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 합리적 기대를 하는 사람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보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큰 이득을 획득하고자 하는 투기자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믿는 사람은 그 가격이 곧 하락할 것임을 예상하고 부동산 매입을 자제할 것이다. 이 때 정부가 투자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투자를 단속한다. 정부의 그런 선전에 의해 투자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식을 받아들여 이르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진정되게 된다. 정부의 선전 또는 선동이 사람들의 지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됨

40) 마음속에 경제이론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행동하는 인간이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 경제 내에 있다면 합리적 기대가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을 알 수 있다. 물론 투기 단속은 선전과 선동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나 정치가들은 경제주체들이 가진 잘못된 지식을 이용하여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정부는 통상적으로 이자율을 인상하여 통화량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지난 수십 년 간 우리나라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경험이다. 그러므로 합리적 기대가설은 성립하기 어렵다.

넷째, 합리적 기대가설은 선형적 이론인 경제이론과 심정학적 경험을 엮어 짚으로써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sup>41)</sup> 심정학과 역사학을 통해 심정학적 지식을 유도하고 그런 지식은 경제이론의 보조적인 가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합리적 기대 가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경제이론과 심정학적 지식을 엮어 짚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합리적 기대가설은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인간들이 합리적 기대를 가질 때만이, 오직 그 때만이 합리적 기대가설이 유효하게 될 것이다. 현실에서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그렇게 된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 2. 적응적 기대

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s)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의 형성을 경제주체들의 과거에 일어났던 과오에 기초하는 기대형성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인간은 심정학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회경제적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한다. 이 때 미래 예측이란 미래에 대한 특정한 이해를 말한다. 물론 미래에 대한 특정한 이해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기업가적 능력(entrepreneurial abilities)에 달려 있다. 이 점을 Mises(2007, p. 265)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가치평가와 계획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그것들(다른 사람들의 가치 평가와 계획을 말함, 저자주)을 정확히 평가하기를 바란다.”

미제스의 관점에서 적응적 기대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41) Mises(1996), p. 66 참조.

없다. 첫째, 인간은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가치평가와 계획에 대해 정보를 모으고 그것들을 평가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적응적 기대에서 인간은 자신의 과오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전제되고 있다. 기대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적응적 기대는 비실재적(unrealistic)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적응적 기대에서 경제주체들은 모든 원인적인 요소들을 조사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적응적 기대에서 경제주체들은 경제 변수의 미래 가치를 예상함에 있어서 그들이 한 과거의 과오로부터 기계적으로 외삽(extrapolate)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진실이다. 따라서 적응적 기대의 전제는 합리적 기대가설과 마찬가지로 심정학적 경험 또는 지식과 배치되는 것이다. 즉 적응적 기대의 두 번째 전제도 비실재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적응적 기대는 암묵적이지만 동일한 인간을 가정하고 있다. 이 가정은 예측하고 적응하는 능력에 있어서 인간들은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변화무쌍하다는 심정학적 경험과 모순된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 인간은 다양한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차이가 자주 변하지만 적응적 기대는 이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 IV. 미제스의 기대형성에 대한 접근법의 응용

### 1. 독일의 초인플레이션<sup>42)</sup>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이란 독일에서 1914년 무렵에 시작되었고, 1923년에 막을 내린 ‘전쟁 인플레이션’(war inflation)을 말한다. 독일에서 1914년부터 1923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통화량과 초인플레이션의 관계를 Sennholz(1979)가 저술한 *The Age of Inflation*에서 먼저 요약한다.

전쟁 초기의 재정적자로 대략 1~2%의 물가상승이 발생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통화량은 약 4배 증가했고 물가는 약 140% 상승했다. 통화량의 증가로 1918년 무렵에 물가가 1914년 이전보다 크게 상승했지만 물가상승의

42) 아래의 내용은 Mises(1990)의 설명을 기초로 하고 Salerno(2010), Sennholz(1979) 등의 설명을 보완하였다.

관점에서 초인플레이션으로 간주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 결과 1918년 말 무렵 독일의 마르크화는 달러화보다 약했지만 프랑스의 프랑화보다는 강했다.

그러나 1919년부터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건강,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그 이외에도 국유화된 산업들 - 철도, 통신 등 - 의 적자, 휴전에 따른 배상, 노조의 경영 참가와 특권 강화, 혁명의 무질서 등이 재정지출을 확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실질 가치(real value)로 평가한 재정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당시 정부는 증가하는 재정적자를 화폐 발행으로 충당했다. 1914~1923년 기간 동안에 정부 재정 수입의 약 15%는 세금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1923년 10월에는 재정 수입의 약 0.8%만이 세금으로 충당되었다. 이 무렵 재정지출은 온전히 화폐 발행으로 충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용어로는, 재정수지는 거의 대부분이 적자였고 그 적자를 화폐를 발행하여 충당했다는 말이다.

1923년 12월 마르크화의 총발행량은 496.5 쿼틸리언(쿼틸리언은 10의 18승배를 말함)으로 증가했다. 전쟁 이전과 비교하여 1923년 12월에 통화량은 15~20배 증가했고, 물가는 40~50배 상승했다. 화폐량의 증가 속도에 비한다면 재화들의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빨랐고, 그 결과 화폐 가치의 하락 속도가 더 빨랐다. 이 당시 마르크화의 가치는 1914년 금 가치의 1조분의 1로 낮아졌다. 그 결과 환율은 미화 1달러에 4.2조 마르크, 1페니는 420억 마르크가 되었다.

미제스는 자신이 주장한 기대에 대한 심정학적 접근법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다.<sup>43) 44)</sup> 아래에서는 사람들의 기대가 인플레이션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통화량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이론을 제시한 미제스로서는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Sennholz(1979)에 의하면, 당시 독일 정부는 투기자들, 자본가 계급의 탐욕, 국제수지의 악화 등을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비난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1914년 무렵의 독일 국민 - 노동자들, 기업가들, 은행가들 등을 말함 - 은 전비 조달을 위한 엄청난 화폐의 발행으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그 결과 재화들의 일반적인 가격 상승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때까지도 그들

43) Mises(1990), pp. 96~103 참조.

44)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자주 초인플레이션 또는 초인플레이션과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를 들 수 있다.

은 금본위제의 오랜 경험에 의해 ‘비탄력적 기대’(inelastic expectations)를 뿌리 깊게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비탄력적 기대란 독일 화폐는 가치가 매우 안정되어 있어서 물가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대는 ‘Knapp의 학설’에 의해 강화되었다. Knapp의 학설이란 “국력은 화폐 가치의 원천이다”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Mises(1990, pp. 101~102)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쟁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누구도 화폐 단위의 가치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했다. 사업가와 노동자, 양 쪽 모두 마르크(Marks)로 표기한 소득이 오른다는 것은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고 믿었다. 그들은 마르크의 가치가 하락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마르크로 셈하는 것을 계속했다. 그들은 상품 가격들이 상승한 것은 봉쇄(전쟁으로 인한 경제봉쇄를 말함)로 인한 재화의 부족 탓으로 돌렸다.”

미제스가 언급한 상황은 몇 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독일 국민은 물가상승의 원인을 간파하고 그에 따라 기대를 적응시켜 나갔다. 물론 원인을 파악하고 기대를 적응시켜나가는 능력은 사람마다 달랐다. 노동자들에 비하여 기업가들이 기대를 적응시켜 나가는 능력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기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적응적 기대’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적응적 기대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의 형성을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기초하는 기대형성 방법을 말한다. 한 마디로, 인플레이션의 초기에 독일인들은 비탄력적 기대를 적응적 기대로 바꾸어 나갔다고 할 수 있지만 적응적 기대를 가지게 된 정도와 정확성은 개인마다 모두 달랐다고 하겠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기업가적 통찰력이 뛰어났던 일부 사람들은 미래에도 물가상승이 지속될 뿐 아니라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 일로부터 화폐 이득(pecuniary gain)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합리적 기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합리적 기대란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진정한 통계적 기대치와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합리적 기대는 외환 시장,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의 순서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외환 시장 등의 투기자들이 모두 동일한 예측 능력을 가졌다고는 할 수는 없었다.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다수, 즉 대중은 상품화폐 시대의 경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경험으로부터 의미 있는 결론을 유추할 수 없었다. 그들은 비탄력적 기대를 대신할 새로운 기대, 즉 적응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초기에 물가상승률이 통화 공급량의 증가율, 즉 인플레이션율보다 시차를 두고 뒤따라갔던 이유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재화들의 몇 년의 급격한 물가상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임금 노동자들과 농업 종사자들의 다수 - 수적으로는 국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는 재화들의 일반적인 가격 상승이 화폐 공급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차렸다. 그 결과로, 마르크화의 구매력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그들의 신뢰는 뿌리 채 흔들렸다. 이제 투기자들 뿐 아니라 대중이 화폐와 물가의 관계를 기초로 한 합리적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대중은 이제 높은 물가상승이 정부 정책의 결과로서 쉽게 안정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당시 통화당국은 통화량 증가와 물가상승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당시의 정부와 통화당국은 문제가 되고 있는 높은 물가상승은 국제수지의 적자, 투기, 자본가 계급의 음모 등 때문에 발생한다고 믿었다. 다른 한편, 당시의 통화당국이 통화량 증가와 물가상승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화폐 발행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물가상승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점은 추후에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sup>45)</sup> 어느 경우이든 통화당국은 투기 억제 정책 등을 실시했을 뿐 아니라 투기자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초인플레이션 말기에 국민들 다수는 통화량 증가와 물가상승의 관계를 '간파'했다고 하겠다.<sup>46)</sup> 그것은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수 국민이 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증가한 화폐로 즉각적으로 실물 재화들(real goods)를 교환하고자 했고, 그 결과 물가상승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이 증명한다. 초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단계에서 화폐가치의 하락 속도는 화폐량 증가 속도보다 빨랐다. 모든 국민은 임금 등의 형태로 마르크화를 받지말자 화폐 보유를 즉각적으로 영(零)으로 만듦으로써 화폐를 보유하지 않으려고 했다.

45) 이 점은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것이다. 그에게 감사한다.

46) 국민 다수는 통화량과 물가상승의 복잡한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기보다는 그 둘의 인과 관계를 본능적 수준에서 알았다는 의미일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간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통화당국의 '이해'는 오늘날 경제학에서 기술되는 복잡한 인과관계를 아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요약하면, 모든 경제 주체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기대를 형성했다고 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어느 정도 편차가 있었다. 다만 물가상승 초기에는 절대 다수의 사람이 비탄력적인 기대를 가졌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다수의 사람이 적응적 기대를 가졌으며, 최종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합리적 기대를 가졌다. 그런 기대에 따라 통화량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 과정은 초기에는 통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물가상승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중기에는 가격들의 상승률이 통화량 증가율보다 낮았으며, 최종적으로는 가격들의 상승률이 통화량 증가율보다 훨씬 더 컸다.

Mises(1996, pp. 427~28)는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변화와 화폐 체제의 붕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플레이션 과정의 첫 단계는 여러 해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이 단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많은 재화들과 서비스들의 가격은 아직 변경된 화폐 관계(화폐의 수요와 화폐의 공급의 관계를 말함, 저자주)에 맞춰지지 못한다. 비록 그 상승의 정도가 다양한 상품들과 서비스들에 대해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모든 가격들의 엄청난 상승을 초래할 가격 혁명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 안에는 여전히 있다. 이 사람들은 어느 날엔가 가격들이 하락할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 이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구매를 제한하고 현금 보유를 증가시킨다. (중략) 그러나 그 다음에 드디어 대중은 깨어난다. 대중은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의도적인 정책이고 무한정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붕괴(화폐 체제의 붕괴를 말함, 저자주)가 일어난다. 벼락 경기(crack-up boom)가 나타난다. 모든 사람은 실제로 필요하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든지 간에, 화폐를 ‘실물’ 재화들과 교환하려고 애쓴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몇 주 또는 심지어 몇 일 이내에, 화폐로 사용되었던 것이 더 이상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한다. 그것들은 휴지 조각이 된다. 누구도 그것들을 받고 어떤 재화도 양도하려 않는다.”

초인플레이션으로 화폐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제 통화당국이 통화량을 조금만 증가시켜도 공황이 발생한다. 비록 한 번의 경험이지만 그 경험이 너무 크고 중요해서 기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점을 Mises(1990, p. 102)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화폐체제의 최종적인 붕괴에 이를 때까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국가는 예전의 기억이 없어질 때까지 이런 종류의 실험(초인플레이션을 말함, 저자주)을 두 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1923년 인플레이션의 목격자들과 희생자들이었던 남녀가 여전히 살아있는 한에 있어서는 어떤 독일 정부도 재무부를 위하여 통화를 발행함으로써 통화량을 증가하고자 하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었다. 자신들이 경험한 고통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조심하게 된 그들은 인플레이션의 초기에 조차도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가격들의 상승은 지폐량의 증가의 최대 비율을 능가했다.”

## 2. 조선왕조 말기의 화폐정책

조선왕조 말엽에 대원군은 1867년에 당백전을 대량으로 발행하여 경복궁의 중건을 포함한 왕조 정부의 재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했다. 그 이전까지 1678년에 숙종이 처음 발행한 상평통보가 사용되었다. 문제는 당백전의 명목가치는 상평통보<sup>47)</sup>의 100배이지만 당백전의 실질가치는 약 5~6배 수준이었다.<sup>48)</sup>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상평통보가 양화(good money)이고 당백전은 악화(bad money)라는 것이다. 그러나 상평통보도 여러 번의 화폐변조(monetary debasement)로 정상적인 상품화폐라고 할 수 없고 실질가치가 조금 밖에 없는 법정화폐(legal tender)라고 하겠다.<sup>49)</sup> 따라서 당백전의 발행으로 왕조정부는 사실상 오늘날의 ‘지폐’ 제도로 이행했다고 간주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상평통보는 1678년에 처음 발행될 때 가장 중요한 금속인 구리가 10그램이 들어있었으나 구리의 함량은 1742년에 8그램, 1752년에 6.8그램, 1757년에 4.8그램으로 줄어들었다. 약 80년 만에 상평통보에 포함된 구리의 함량이

47) 상평통보 한 단위는 ‘1문’으로 불렸고 1문의 실제 무게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상평통보 발행 초기에 주조했던 것은 ‘소전’으로 1전 2푼이고 그 이후에 사용된 것은 ‘대전’으로 2전 5푼이다. 상평통보의 단위는 10문이 1전, 10전이 1냥이다. 그러므로 상평통보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무게 단위를 모방한 것이지만 마지막 단위인 문은 무게 단위가 아니다.

48) 원유한(1967), p. 7 참조.

49) 상평통보가 1678년에 처음 발행되었을 때도 완전한 상품화폐가 아니고 ‘부분지급준비 주화’(fractional reserve coin)였다. 그러므로 당백전 발행 당시에 상평통보는 여러 번의 화폐변조를 거쳤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조금밖에 없는 화폐였다.

1678년 당시의 48%로 감소한 것이다. 물론 이런 가치변조를 통해 왕조정부는 ‘화폐주조에 따르는 이득’(seigniorage)을 얻었다. 이현창(1999)이 추정한 상평통보 발행총량은 1678년부터 당백전 발행 직전까지 약 15,500,000양이었다. 대원군은 1866년 12월부터 1867년 6월까지 당백전 약 16,000,000양을 발행했다.<sup>50)</sup> 아주 단기간에 엄청난 양의 당백전을 발행한 것이다. 화폐의 총재고는 당백전의 발행으로 1867년 6월말에 약 2배로 증가했다. 다시 말하면 6-7개월 동안의 화폐량의 증가율, 즉 인플레이션율은 총재고 기준으로 2배라는 것이다. 물론 화폐의 총재고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조한 양이고 당시 민간이 비밀리에 주조한 양은 포함되지 않았다.<sup>51)</sup>

당백전 발행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당백전의 발행으로 쌀로 표시한 물가 상승은 약 2년 동안에 약 600% 상승했다.<sup>52)</sup> 이 상승률을 월간 물가상승률로 환산하면 대략 약 7.3~7.5%가 된다. 다시 말하면, 당백전 발행으로 민간은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는 것이다.<sup>53)</sup>

왕조정부는 당백전의 사용을 법으로 강제했다. 그 결과 1867년 7월4일 당백전이 상평통보를 축출했다는 보고를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섬의 법칙’이 작동한 것이다. 7월 4일이라는 시점은 당백전 발행을 종료하고 긴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러나 법으로 사용을 강제한 당백전은 오래가지 못했다. 급격한 물가상승의 범인이 당백전이라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한 민간은 당백전을 상평통보로 대체했다. 당백전의 사용이 축소되면서 왕조정부는 1868년 2월 23일 세금을 포함한 모든 공과금은 당백전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법령을 공포했다. 그러나 폭발적인 물가상승에 직면한 민간은 더 이상 당백전을 사용하지 않았다.

왕조정부는 민간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당백전의 사용을 금지하고 공식적으로 환수했다. 그러나 언제 환수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

50) 원유한(1967), p. 6 참조.

51) 당백전은 화폐주조에 따르는 이득이 큰 것이기 때문에 민간의 비밀리에 주조하는 양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양을 알 수는 없다.

52) 당시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곡식이라는 점에서 쌀로 표시한 물가상승은 화폐가치의 하락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53) 1678년부터 1866년까지 약 188년 동안 쌀 가격은 약 200% 상승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 기간에 물가가 매우 안정적이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은 구간별로 다를 뿐 아니라 화폐의 총재고도 추계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앞의 물가 자료를 역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용덕(2013)을 참조.



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원유한(1967, pp. 315~16)은 1868년, 유자후(1974, p. 513)는 1873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Palais(1975, p. 341)는 정부가 당백전을 환수한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 환수했느냐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당백전을 환수하기 이전에 이미 당시 사람들이 당백전의 사용을 중단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아마도 1868년 2월 23일 법령을 공포할 무렵에는 적어도 민간에서는 당백전이 상평통보로 상당 부분 교체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Kim, Jeon, and Yang(2003)은 당백전의 강제 사용, 인플레이션, 상평통보의 재사용이라는 과정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 기대가 인플레이션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는 다루지 않고 있다. 특히 민간의 기대가 상평통보의 재사용과 당백전의 환수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말이다. 여기에서 기대란 화폐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 화폐의 객관적 가치는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화폐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기대가 화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54)</sup>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민간의 기대가 화폐의 사용과 인플레이션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가설적 성격의 주장을 하고자 한다. 가설적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것은 민간의 기대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1867년 초 당백전이 시중에 유포되기 시작할 무렵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대중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때 민간은 미제스가 말하는 소위 ‘비탄력적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이전까지 아주 오랫동안 실질가치가 작지 않은 법정화폐를 사용하여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당백전이 일시에 유통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물가는 짧은 기간에 급격히 상승했다. 당시 모든 사람은 처음으로 그런 급격한 물가상승을 경험했을 것이다. 흉년이 들어 물가가 상승한 경우가 있을 것이나 당시 왕조 정부는 구휼미 등으로 물가의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했을 뿐 아니라 일부 재화만이 가격이 상승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백전의 대량 발행으로 인한 다수 재화의 급격한 물가상승은 처음일 것으로 여겨진다. 민간들은 빠르게 자신들의 기대를 현실에 적응하고자 노력했다. 적응적 기대가 작동하는 것이다. 모든 민간이 적응적 기대를 잘 한 것은 아닐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에 당백전 발행 초기에 통화량 증가에 비한다면 물가상승은 낮았을

54) 화폐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Mises(1980)를 참조.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사적 증거는 구할 수 없다. 당백전 발행 초기에 정부에 의해 낮게 평가된 상평통보는 시장에서 점차 사라지고 정부에 의해 높게 책정된 당백전만 사용되었다. 이는 ‘그래섬의 법칙’이 작동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당백전이 일시에 시중에 유통되면서 대부분의 민간은 이제 당백전의 팽창과 물가상승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제 누구도 실질 가치가 매우 낮은 당백전을 받고 재화를 팔고자 하지 않았다. 교환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상평통보가 유일한 교환수단으로 간주되었다. 당백전을 보유하지 않기 위하여 보유한 당백전을 최대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합리적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사실상 지폐였던 당백전은 과다 발행된 오늘날의 지폐와 같은 운명이 된 것이었다. 기대가 형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은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극심한 물가상승, 그래섬의 법칙의 작동, 상평통보가 재사용되는 등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im, Jeon, and Yang(2003)은 게임이론으로 상평통보의 재사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잘 계산하고 ‘명시적 협력이 없는 협력’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다시 말하면, 민간의 기대의 형성에 관한 지식 없는 상태에서의 현상에 대한 설명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앞의 인용문에서 미제스는 문제의 화폐가 휴지조각이 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백전이 휴지조각이 되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당시 민간은 다행스럽게도 양화인 상평통보를 보관하고(hoarding) 있었기 때문에 당백전을 폐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으로 여겨진다.<sup>55)</sup> 만약 상평통보를 보관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쓰거나 당백전으로 재주조했다면 그렇게 쉽게 상평통보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백전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중단한 왕조 정부는 1867년 6월 청전의 사용을 합법화했다.<sup>56)</sup> ‘가경통보’, ‘도광통보’, ‘동치통보’ 등의 명칭을 가진 청전은 명목가치가 상평통보와 동일했다. 그러나 청전의 실질가치는 상평통보의 3분의 1이었다.<sup>57)</sup> 당시 청전의 유통량은 3백만~4백만 냥에 이르렀다. 당시 상평통보

55) 주류 경제학은 ‘hoarding’ 을 잘못된 행위로 비난한다. 그러나 그런 비난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서 이 점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56) 이하의 역사적 사실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원유한(2006), pp. 268~332 참조.

57) Palais(1993, 번역서)는 청전의 실질가치가 상평통보의 2분의 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번역서 p. 291 참조.

의 유통량의 약 30~40%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청전의 유통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자 물건 사재기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청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은 고종은 1874년 청전의 유통을 금지했다. 이 때 생활필수품의 가격은 100배, 즉 10,000%로 상승했고 청전의 가치는 크게 떨어져서 청전을 단 한 개라도 소유한 경우에 재화와 교환하기를 원했다.<sup>58)</sup> 청전의 사용을 합법화하고 다시 사용을 금지하는 데 약 7년밖에 되지 않았다.

1883년 2월 고종은 청전의 주조 중단으로 인한 정부 재정의 파탄 위기에 직면하여 당오전을 발행했다. 당오전의 실질가치는 상평통보의 2배이고 명목가치는 5배이다. 여기에 민병석은 기존의 상평통보에서 실질가치를 떨어뜨린 상평통보를 발행했는데, 이것을 당시 평양전이라고 불렀다. 당오전의 발행으로 재화의 가격이 다시 급격히 상승했다. 1884년 봄 쌀 1되(승(升))의 가격은 25전에서 1884년 11월경에 75~80전으로 상승했다.<sup>59)</sup> 같은 기간 목면 1자(척(尺))의 가격은 17전에서 50전으로, 노동자의 일당은 80전에서 150전으로 상승했다. 당오전의 발행으로 10년 전에 비해 재화의 가격은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이상으로 상승했다.<sup>60)</sup> 당오전의 발행으로 일본 화폐와의 교환비율은 1883년 대비 1892년에 약 1,200%만큼 환율이 상승했다.<sup>61)</sup> 당오전의 과다 발행으로 최종적으로는 상평통보와 당오전이 같은 가치로 사용되었다. 당오전으로 인한 극심한 물가상승은 서울과 경기도, 호서의 일부 지역 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당오전을 사용하기를 거부하여 사용되지 않았다.<sup>62)</sup> 왜냐하면 서울과 경기도, 호서의 일부 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중앙의 통제력이 잘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중앙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악화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기대라는 관점에서는, 이 때 민간들은 합리적 기대에 의해 당오전의 사용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악화인 당오전의 과다 발행으로 인한 극심한 물가상승은 당오전의 발행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당오전이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만 통용되었던 점도 당오전 발행 중단에 한 몫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왕조정부는 1894년 7월 8일에 당오전의 발행을 중단했다. 왕조 정부는 당오전을 처음 발행하고 약

58) Palais(1993, 번역서), p. 333 참조.

59) 원유한(1967), p. 336 재인용.

60) 원유한(1967), p. 336 재인용. 원유한은 물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문맥으로 보아 각 재화의 가격 상승이 서로 달랐고 큰 차이가 났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61) 원유한(1967), p. 337 재인용.

62) 원유한(1967), p. 334 재인용.

11년 만에 그 발행을 중단했다.

1894년에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을 반포하고 은본위제로 이행할 것을 계획했다. 이 때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외국 화폐의 혼용을 허가했다. 이 장정의 반포로 일본 정부는 자신의 화폐를 조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은본위제로의 이행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왕조정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재정 압박 때문에 주조에 따르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보조화폐인 백동화 발행에 힘을 쏟았다. 예를 들어, 1896년 정부의 세입예산 중에 약 26.6%가 화폐 발행으로 충당되었다.<sup>63)</sup> 백동화 1개의 실질 가치는 5푼 미만이고 액면 가치는 그 5배인 2전5푼으로 규정되었다. 1892~1904년 기간 동안에 백동화의 발행량은 같은 기간 은본위제로 인한 전체 화폐 발행량의 약 88%를 차지했지만 상평통보를 포함한 전체 화폐 발행량에서 백동화 발행량의 비중을 알 수는 없다. 이 기간에 경상, 전라, 함경도는 상평통보 전용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세 지역에서 상평통보를 전용했다는 사실은 백동화의 발행에 대해서도 민간은 합리적 기대를 가졌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 당시 백동화의 주조에 따르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사주(私鑄)가 많았다. 특히 평안도 지역에서는 전체 통화량의 약 69%가 백동화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피해가 컸다.<sup>64)</sup> 이 때 극심한 통화량 증가로 화폐의 상품으로의 교환, 즉 사재기, 외국화폐로의 교환 등이 일어났다. 이 당시 일본 화폐 100원과 백동화의 교환비율의 변화를 보면, 1899년 116원, 1900년 127원, 1901년 140원, 1902년 178원, 1903년 188원, 1904년 198원, 1905년 211원이다. 1899년부터 1905년까지, 약 6년 만에 백동화의 가치는 약 반으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sup>65)</sup>

1905년(광무 9년)에 대한제국정부는 금본위제를 채택하는 화폐조례를 반포했다. 그러나 조폐 업무는 1904년 11월에 이미 일본의 오사카 조폐국으로 넘어갔다. 1905년이 조선왕조 후기 화폐사에서 중요한 것은 조선왕조(대한제국 포함)의 화폐제도를 일본의 화폐제도에 예측시킨 시기라는 것이다. 이 때 대한제국은 화폐주권을 일본에게 탈취 당했다.

1867년 당백전의 발행과 사용 금지, 1867년 청전의 사용 합법화와 1874년 사용 금지, 1883년 당오전의 발행과 1894년 사용 금지, 1894년 백동화의 발행과 1904년 사용 금지, 1905년 화폐주권을 일본에게 탈취당한 역사는 다음

63) 원유한(2006), p. 298 재인용.

64) 원유한(2006), p. 305 재인용.

65) 원유한(2006), p. 304 재인용.

한 가지 점을 보여준다. 민간은 통화량 증가, 즉 인플레이션이 물가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조 정부에 의한 새로운 화폐의 발행과 유통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백전 발행 이후에 새롭게 발행된 화폐들은 길어야 10여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사용이 중지되었다. 당백전과 그 이후에 계속된 여러 번의 새로운 화폐 발행의 실패는 민간의 화폐에 대한 큰 경험은 이후 세대가 바뀔 때까지 민간이 두 번 다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제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청전의 사용기간이 7년밖에 되지 않은 점, 그 이후에 발행된 당오전과 백동화는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된 점 등은 미제스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에서 민간의 기대-비록 시기별로 기대는 달랐지만-가 일정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당시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기대로 당시 인플레이션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 V. 결론

기대형성 방법과 기대의 내용은 인간행동학의 일부이지 경제학이 아니다. 기대, 구체적으로 화폐의 가치에 대한 기대는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sup>66)</sup> 현실 세계의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기대의 내용과 기대형성 방법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심정학적 경험에 기초한 지식을 토대로 한 투기적 예측인 기대를 경제이론의 보조가정으로 채택할 때 경제정책의 결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 과정과 같은 경제현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대를

66) Ebeling(1988, p. 12)은 미제스의 화폐이론과 사회주의 비판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 중에서 특기할 만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 특징이란 “시장 주체들에 의한 불완전한 지식의 인지, 변화에 대한 시제적이고(temporal) 순차적인 적응, 모든 경제적인 평가와 가치판단에 내재된 예상적인 특성”을 말한다. Ebeling(1988)의 요약은 미제스의 화폐이론과 사회주의 비판에 나타난 특징들을 간결하게 잘 요약한 것처럼 보인다.

경제이론의 보조가정으로 채택하는 것, 즉 인간행동학적 경제학 – 단순한 경제학이 아니라 – 이 필요하다. 특히 대량의 통화량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좀처럼 잘 확장 또는 회복되지 않는 경우, 즉 경제이론대로 경제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기업가들의 기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sup>67)</sup>

사실 미제스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기대의 형성 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기대형성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부 연구자는 그의 이론을 오해했고 오스트리아 학파를 추종하는 연구자들은 그의 접근법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와 상관없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제스가 제시한 기대이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Salerno(2010, p. 233)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더 넓게는, 미제스의 기대이론은 경제이론을 설명함에 있어서 역사적 연구와 심정학적 연구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길을 연 것이다.”

67) 이 점은 통화량 감소에도 유효하다. 그리고 Salerno(2010, pp. 230~31)는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 참고문헌

- 원유한. 1967. “당오전 고”. 『역사학보』 . pp. 35~36, 313~339.
- \_\_\_\_\_. 2006. 『한국화폐사-고대부터 대한제국시대까지』 . 한국은행 발권국.
- 유자후. 1974. 『조선화폐고』 . 한국일보사. 2차 개정판.
- 이현창. 1999. “1678~1865년간 화폐량과 화폐가치의 추이”, 『경제사학』 , 27, pp. 3~45.
- 전용덕. 2013. “상평통보 발행의 동기와 그 함의들”, 미발표 원고.
- \_\_\_\_\_. 2014. 『경제학과 역사학-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론과 인식론』 , 한국경제연구원.
- Begg, D. K. H. 1982. *The Rational Expectations Approach in Macroeconomics: Theories and Evidenc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Edward, J. R. 1985. *The Economist of the Country: Ludwig von Mises in the History of Monetary Thought*, New York: Carlton Press, Inc.
- Ebeling, R. M. 1988. “Expectations and Expectations Formation in Mises’s Theory of the Market Process”, *Market Process*, Vol. 6, 1988, pp. 12~18.
- Hayek, F. A. 1972a. “Economics and Knowledge”, in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pp. 33~56. Chicago: Henry Regnery Company.
- \_\_\_\_\_. 1972b.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in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pp. 77~91. Chicago: Henry Regnery Company.
- \_\_\_\_\_. 1978. *Denationalisation of Money-The Argument Refined: An Analysis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ncurrent Currencies*, 2nd ed. London: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 Kim, Y. Y., Jeon, Y. D., and Yang, C. Y. 2003. “Gresham’s Law in the late Chosun Korea”, *American Economic Letters*.
- Kirzner, Israel M. 1973.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University Press.
- \_\_\_\_\_. 1979. *Perception, Opportunity, and Profit: Studies in the Theory of Entrepreneurship*,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Lachmann, L. M. 1943. “The Role of Expectations in Economics as a Social

- Science." *Economica*, X (n. s.) No. 37 (Feb.) pp. 12~23.
- \_\_\_\_\_. 1976. From Mises to Schackle: An Essay on Austrian Economics and the Kaleidic Socie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4 (March): pp. 54~62.
- \_\_\_\_\_. 1986. *The Meaning of the Market Process*. New York: Basil Blackwell Inc.
- Mises, Ludwig von. 1978. *On the Manipulation of Money and Credit*, B. B. Greaves, trans. Dobbs Ferry, N. Y.: Free Market Press.
- \_\_\_\_\_. 1980.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 Indianapolis: Liberty Fund.
- \_\_\_\_\_. 1983. *Nation, State, and Econom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_\_\_\_\_. 1990[1932]. "The Great German Inflation." in Richard Ebeling ed. *Money, Method, and the Market Process*. Norwell, Mass.: Kluwer.
- \_\_\_\_\_. 1996[1949]. *Human Action*. San Francisco, Cal.: Fox & Wilkes.
- 민경국·박중운 역. 2011. 『인간행동I, II, III』.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 \_\_\_\_\_. 2003. *Epistemological Problems of Economics*. Auburn, Ala.: Mises Institute.
- \_\_\_\_\_. 2006. *The Ultimate Foundation of Economic Science*. Indianapolis, Indiana: Liberty Fund.
- \_\_\_\_\_. 2007[1957]. *Theory and History*. Auburn, Ala.: Mises Institute.
- \_\_\_\_\_. 2010. *Socialism: An Economic and Sociological Analysis*. Indianapolis: Liberty Press.
- \_\_\_\_\_. 2011. *A Critique of Interventionism*. Auburn, Ala.: Mises Institute.
- Palais, James B. 1975.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이훈상역(1993), 『전통한국의 정치와 정책』, 신원문화사.
- Rothbard, Murray N. 1993. *Man, Economy and State*. 3rd ed. Auburn, Ala.: Mises Institute. 머레이 N. 라스바드. 2006. 『인간, 경제, 국가』, 전용덕·김이석 공역, 자유기업원.
- Salerno, Joseph T. 1990. "Ludwig von Mises as Social Rationalist." *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4: pp. 26~54.

\_\_\_\_\_. 1993. "Mises and Hayek Dehomogenized." *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6 (2): pp. 113~46.

\_\_\_\_\_. 2010. *Money: Sound and Unsound*. Auburn, Ala.: Mises Institute.

Sennholz, Hans F. 1979. *The Age of Inflation*, Western Islands.

*Abstract*

## Mises' Approach to the Formation of Expectation and Application

Yoong-Deok Jeon  
(Daegu Univ.)

Mises is one of a few scholar who have academical contribution about “the way of expectation formation” and “the effect of expectation on inflationary process”. This study shows Mises' expectation theory that human forms expectation of future based on specific understanding as historical principle. This work also includes the fact that Mises suggests praxeological economics: economics is a basic principle for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inflationary process and expectation as historical fact should be used as an auxiliary assumption. Using the expectation theory of Mises, this study criticizes 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 and adaptive expectation.

Using his expectation theory, Mises himself explained German hyperinflation around the first World War. Specifically, Mises showed that the effect of inflation was not the same in the different periods since German people at that time had changed the expectation of inflationary process from inelastic expectation through adaptive expectation to rational expectation.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a hypothetical argument that people's expectation affected inflationary process of monetary policy at the end of the Chosun Dynasty.

**Key Words:** Expectation Theory of Mises, Thymology,  
Praxeological Economics, German Hyperinflation,  
Monetary Policy of the Chosun Dynasty

【2015. 6. 17. 접수】 【2015. 8. 30. 수정】 【2015. 8. 30. 게재확정】